

천연자원서 건강식품·화장품·신약 뽑아낸다

지역 특산자원 연구·개발...한방산업 이끌 쌍두마차 황칠 상품화·천연 해충방제제품 업체 등 입주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원 오교녀(사진 앞)·한서영 연구원이 '다초점 형광 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전남도 천연자원연구원(원장 이성재)과 전남도 한방산업진흥원(원장 조정희)은 지역특산자원의 연구·개발과 우수 약용작물 종자 보급 등 전남도 한방 관련 산업을 이끄는 쌍두마차이다. 장흥군 안양면 억불산 산기슭의 옛 남도대 장흥캠퍼스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산자원 소재 연구'천연자원연구원=전남도와 장흥군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남도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한 웰빙·생약 원료소재 연구·생산과 관련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돼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개원이후 전남도 특산자원 122종을 A·B·C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헛개나무, 황칠나무 등 37종을 A급으로 선정, 연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층 세포분석실에서 오교녀·한서영 연구원이 다초점 형광 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등 연구결과가 가득하다.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하는 밀원수(密源樹)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헛개나무에서 생산하는 벌꿀에 대한 효능연구도 그중 하나이다. 헛개나무 벌꿀의 간기능 보호와 숙취제거 효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피부노화 억제·미백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화장품과 천연물 신약까지 기대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황칠나무와 매실을 비롯해 개펄 등 토양자원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산자원의 약리작용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동물실험을 위해 동물 사육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400평 규모의 '공정연구동'(Pilot plant)을 본격적으로 가동, 생약자원 성분추출과 제품화 등 일련의 공정을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게된다. 생약자원 처리시설과 토양자원 처리시설도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 황칠을 상품화한 '디피바이오랩'과 천연 해충방제제품을 생산하는 '네츄로바이오텍'이 입주했고, 올 하반기에 3개 업체가 창업보육공간에 들어온다.

이성재 천연자원연구원 원장은 "황칠과 헛개나무, 울금 등 생약자원은 전남이 자랑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이라며 "이러한 특산자원이 갖고 있는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 고부가가치 소재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방산업' 메카 (재)한방산업진흥원=전남의 우수 약용작물 발굴·육성과 우수 한약재 품질관리 인증 체계·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 11월 설립돼 지난 3월 개원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소재의 제품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의약사업 DB구축사업 진행과 함께 우수 한약재의 검사를 토대로 품질인증을 실시, 지역에서 생산된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온합습 무균시스템을 비롯해 액체 크로마토-질량분석기 등 시험분석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전남도내 특산 한약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개발 등 한방제품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한방 쌀 죽석국수'(장흥 보편)를 개발했으며, 해조류인 '꼬시래기'를 이용해 '2012 여수 해양엑스포' 공식음료를 개발중이다.

또 경희대 한의대, 국내 제약회사 등과 협력해 아토피 증상개선 한방식품과 한방아토피 화장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정책 지원사업으로 한약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품 한약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약 소비실태 조사연구'를 진행중이다.

지난 6월에는 1천억원대에 이르는 한약재 종자시장을 이끌 '약용작물종자 보급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보급종 육묘장과 조직배양 실험실 등을 설치, ▲우수 약용작물 품종선발과 증식·보존·보급 ▲약초의 체계적인 고품질 표준

재배법 확립 ▲약용작물 종자 정보관리 DB구축 등 한약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흥원 앞 유리온실과 및 채종포에는 식방풍(갯기름나물), 황금, 딱지꽃, 두메장충이, 백출, 단삼, 잔대 등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다채로운 약용작물이 식재돼 자라고 있다.

그동안 우량품종의 약용작물 종자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서 '보완통합의학박람회'(Green Healing Expo)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에서도 지자체들이 약초산업을 차지 블루오션으로 키우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통합의학과 한방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밖에도 산·학·연·관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연구 및 산업화 네트워크, 한방전문 유통·마케팅 체계구축, 한방전문 인력 양성 등 한방관련 산업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희 한방산업 진흥원 원장은 "청정 전남 중부권을 우수 한약재 생산의 거점확보는 물론 한방산업의 중심축, 한방유통의 허브, 한방관광 벨트의 거점연계로 명실상부한 국내 한방산업 메카로 집중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한방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난 7월말 장흥 물축제축제기간중 전남도 한방산업 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초·목·수·탁 생약대전'에서 참가자들이 생약초를 이용한 한방음식을 만들고 있다.

